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發行所 朝鮮日報社 京城府中區太平通一丁目 電話本局二八〇〇番

社說 臨時政府에의 期待 (一)

기다리든 大韓臨時政府主席金九先生一行은 再昨日還國하여 엇슬 뿐으로 아직 具體的활동은 업스나 이 事實스스로가 一般民衆에게 感激과 希望을 주고도 남음이 잇스며 深淵한 安堵를 배푸지 안흘수 업는 일이다 이처럼 絶對한 信望을 바칠려는 民衆이야말로 하나의 그리고 大多數의

民衆이 엇기 때문에 가장 意識的으로 가장 深刻하게 저 日本帝國主義的 壓制를 바더온 그들이다 그럼으로 오늘 우리들의 國土에 빗나는 解放과 自由도 爲先 그들의 解放이여야 할것이요 그들의 自由獲得이여야 할것이다 臨時政府宣傳部長 嚴恒燮氏도 記者團과의 會見에 잇서서 今後民衆에게는 「政府로서 對하겟다 그러나 이것도 民衆에게 달렷다 우리들을 政府로서 支持하지안는다면 政府로서 對할수업는것이니까」라고 問題의 局面을 달르나 民衆의 意見을 尊重할 用意가 잇슬것이다.

率直히 말하면 朝鮮의 現實은 아직 淸明한 새벽빗이 아니라고 하지 안흘수업는 現實이다 그것은 眞實한 民衆의 意志를 自己의것으로 하고 우리 民衆의 方向을 自己의 方向으로 하는 政治活動이 아니라 大部分의 動向이란 自身만을 爲하는 政治小派 商人의 流派가 民衆에게 强要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民衆에게 約束되여야 할 것이다 民衆의 表情을 흐리게하는 暗黑한것이나 이暗雲을 하로바삐 없이하야 民衆에게 光明을 주어야 되겟다 民衆은 民衆인 故로 光明을 바들 權利가 잇슬것이다.

二

八月十五日以後 이상에는 數多한 政治團體들이 簇出되여젓스나 이러한 團體에서 一派의 系統을 分解抽出할수잇다면 그것은 人民共和國系統과 韓國民主黨系統과의 對立일것이다 우리들은 이 對立의 止揚策으로서 設定된 李承晩博士의 民族統一戰線을 重要視하는데에 臨時政府의 政治活動 方向이 잇슬것이라고 推測한다 그러나 以上의 三角動向만이 解剖의 唯一한 對象이라고 速斷해서는 안될것이니 最近의 共產黨과 人民黨의 合作形態로나 全國人民委員大會의 動向도 하나의 要因으로서 無視해서는 안될것이다 問題解決의 要點은 問題에서 歸結되는 問題를 分析하야 그 分析狀況이 提示하는 結論에 따라 實踐하는

것도 한方法이기는하겟지만 그러나 民族統一戰線이 이러한 方法으로서만 해결될것은 아니다 臨時政府自體의 獨自한 方法이란 어떠한 性格의 것인지는 지금은 未知數이나 問題의 分析에서 結論을 내여 이에 따라 問題解決을 實踐하려는 方法을 取하려면 一口로 두가지 方法이 提示될것이니 臨時政府自身의 것을 獨占的으로 採用한다는 것과 民衆의 말하지 안는 소리와 나타내지 안는 表情에서 抽出한 民衆의 所願하는 方法 그러므로 民衆의 方法을 採用한다는 두가지일것이다 民衆의 判斷에 依한 臨時政府의 性格은 過去에 朝鮮의 自由解放을 싸워 獲得했고 또다시 約束된 自主獨立을 싸워 獲得하려는데에 臨時政府의 民族統一戰線의 根本이 잇는 것이니 ...

三

그런데 여기에 잇서서는 안될 것은 民衆의 利害와 臨時政府의 利害와의 結合에서 制定되는 第三의 方法의 有效한 實踐이다 이것은 民衆의 意志를 自己의 意志로 하려고 民衆의 方向을 自己의 方向으로 하려고 誠意와 努力하는 動向이 잇는가 업는가를 가장 虛心한 그리고 責任잇는 態度로서 探求해야할것이며 이러한 動向과의 三位一體的 協調야말로 臨時政府의 唯一한 方向이여야 할것이다.

서 臨時政府의 主體的 地位에 잇다는 事實로 因하야 우리는 獨立보다 오히려 統一에 더 重要한 條件을 볼수잇다 그러면 民族的으로 統一戰線의 條件이란 이것은 現在 李承晩博士의 「親日派反逆者를 除外한 統一」과 共和國側의 「親日派를 除外한 統一」과 對立되여 統一運動이 停滯에 걸려잇다

그러나 臨時政府에 對해서 民衆은 金九氏個人의 性格으로보아 親日派反逆分子의 排除는 徹底的으로 實行할것이 期待된다 더구나 「民衆과 輿論에 따라 모든것을 決定하겟다」는 臨時政府의 態度는 그根本에 잇서서 人民共和國의 態度와도 다르다 여기에 統一이 업다면 우리는 어데서 統一을 期待하여야 할것인가

國內現實을把握 戰線統一이要諦
金九主席에의期待絶大

이번 金九先生一行의 還國을 契機로 가장 注目되는것은 말할것도업시 今後政界의 收拾에 對한 期待이다 지난 九月三日 臨時政府主席 金九氏의 이름으로 發表된 當面政策十四個條중에 「國內問題로서 「全國的普選에依한 正式政權이 樹立되기까지의 國內過渡政權을 樹立하기爲하야 國內外 各階層 各革命黨派 各宗敎集團 各地方代表와 및 著名한 各民主領袖會議를 召集하도록 積極努力한다」고 言明하엿는데 이로써 觀測하면 今後 金九主席의 態度가 分明히 全般的으로 民族統一의 路線을 指向하려는것만은 確實하다 그런데 國內統一運動은 金九氏以前에도 이미 政黨統一運動이 잇섯고 또 李承晩博士의 獨立促成中央協議會의 活動도 잇섯스나 率直히 말하면 모다 失敗하엿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그 理由의 첫재로는 八、一五以來 海外勢力의 國內的으로 推進되여온 人民共和國과의 關係가 圓滿히 妥協되지 못한데 잇섯고 둘째로는 李承晩博士를 圍繞한 한 勢力團體가 確實히 어느 한편에 치우치고 말엇다는데 그 原因이 잇섯다 人民共和國은 建國同盟當時부터 「雇傭」을거처 人民共和國成立에 이르기까지 共產黨과人民黨의 合作으로 終始活動하여온만치 民衆가운데 相當히 뿌리를 박고잇스며 또 現下世界的動向의 하나인

人民戰線의 路線을 걸어가고잇스므로 이를 無視한 民族統一이 不可能할것은 말할것도업다 그러므로 端的으로 말한다면 今後臨時政府의 民族統一戰線運動은 對人民共和國問題에 歸着되리라고 보아 틀림업다

現在 國內勢力의 分野를 보아면 結局 나중의 歸着點에 노아간다 國內에는 一見大小無數한 黨派와 團體가 亂立한듯하나 事實에잇서서는 모다 兩大中心勢力을 둘러싸고 이미 그 去就를 決定지우려 할 段階로 드러섯다 卽 四大政黨中 人民黨과 共產黨 對 國民黨과 韓國民主黨의 兩大陣營을 同하야 모든群小勢力을 流動하고잇다 이 四大政黨中 國民黨과 韓國民主黨은 이미 臨時政府還國前부터 無條件하고 臨時政府를 絶對支持하며 服從한다는 態度를 取하여왓스니 別問題업거니와 人民黨과 共產黨의 對臨時政府 態度는 반드시 그러치 못한다 臨時政府의 政策如何에 依하야 以上兩黨의 態度는 決定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結局모든國內問題는 人民共和國對臨時政府問題로 歸結되지안흘수업게되는것이며 더구나 三十八度以北은 벌서 現實的으로 人民共和國支持의 旗幟를 놉히걸고 모든 施策이 이에 쪼차 實施되고잇스며 三十八度以南에잇서서도 지난 二十日부터 三日間開催된 全國人民委員代表者會議의 經過로보아 人民共和國의活動은 相當히 廣汎한 地盤을占하고잇슴을 알수잇다 이에 對하야 臨時政府는 過去數十年間 國民의 精神的 信仰이 엇기는하나 嚴宣傳部長의 말과 가치 「國內事情을 잘몰으고」 國民大衆의 現實的支持는 今後에 期待된다 이때까지 「統一」의 完成이 遲延될때마다 우리는 海外에서 돌아올 志士先輩의 手腕에 미루워왓다 그러나 今般 金九主席一行의 還國으로써 우리는 이 以上더 바랄수업는 最後의 同胞를 待望하게 되엿다 還國한지 아즉 며칠이 되기前에 金九主席一行에게 너무나 複雜하고 너무나 過大한 任務를 要求하지안흐면 안될 이상의 現實이 오히려 원망스럽기도하다 그러나 主席의 말과 가치 「우리 國家獨立의 時間을 最少限度로 短縮식힐」 民族的 使命을 遂行하기 爲하야 우리에게 催促하고잇다 더욱이 現軍政의 存續도 이러한 우리의 活動如何에 따라 或은 오래갈것이요 或은 짧버질지도알수 업다 그러면 三千萬民衆이 待望하는 民族統一戰線은 大體 언제 커질것인가 우에 말한 臨時政府對共和國사이에는 엇더한共通點에서 서로 握手하고 一致될것인가 嚴宣傳部長의 言明한바에 依하면 臨時政府는 적어도 對外的으로는 國民에 對하여는 各政黨을 超越한 政府로서 臨할것이라고 한다 이點은 人民共和國도 政黨우에 存在하고잇스니 그 性質에 잇서

有志者事竟成

朝鮮日報 返國後第一

金九 題

有志者事竟成

金九主席 揮毫

韓中親善을力說
蔣總裁、金九主席一行을歡送
重慶中央日報所載

大韓建國前成의 決意를 품으시고 우리 祖國에 돌아오시지 벌서 이를 泥流에 싸여잇든 政界에도 淸新한 活氣를 띠어 民族統合 國家樂成의 날도 不遠한듯하다 그런데 이번 金九先生一行이 還國하시자 國內外의 視聽은 一齊히 大韓臨時政府領袖들의 움직임에 集中되여 바야흐로 朝鮮의 再興에 이바지하려는 偉大한 革命志士들의 心事로 하여금 벅차게 날뛰게하고잇다 蔣介石主席의 우리 朝鮮同胞들에 對한 同情과 支援이란 여간한것이 아니엿다 今般 金九先生이 還國하심에 際하여도 특별히 送別宴을 베풀엇섯는데 이에 當時重慶「中央日報」所載한바를 紹介하면 다음과갓다

十一月五日에 金九先生一行이 離渝하시게 되든 當日 蔣總裁는 國民中央黨部禮堂에 一行을 爲하여 盛大한 宴會를 베풀엇다 主賓으로는 金九主席 金奎植副主席 外交部長 趙素昂 財務部長 趙琬九 軍政部長 金若山 文化部長 金尙德 內政部長 申翼熙 宣傳部長 嚴恒燮 法務部長 崔東旿 國務委員 柳東說 臨時議政院議長 洪震氏等 諸氏들이며 中國中央政府側에서는 蔣介石總裁 宋美齡夫人 孔祥熙 陳立夫 吳鐵城 王寵惠 丁惟汾 程潛 方治 王世杰 等 百餘名 參席下에 盛大히 擧行되엿다

그런데 蔣介石主席의 友情에 넘치는 謝辭가 잇섯다 朝鮮의 獨立과 해방을 위하여 마지안흔 蔣主席의 中韓兩國의 不可分離한 關係를 말하고 우리 中韓兩國은 共同의 運命을 가지고 잇다 世界의 和平은 바로 兩國의 休戚에 關한것이다 兩國의 友誼가 더욱 굳게 되어 東洋의 安定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中韓兩國이 一致合作하여 協力할 것을 懇切히 말하엿다 이제 金九先生以下 臨時政府要人諸氏를 還國에 臨하여 하로바삐 獨立國家의 完成을 祝願하여 마지안는다」는 蔣介石總裁의 謝辭로 中韓兩國 永遠親善을 三唱하여 散會하엿다

金主席訪問을決議
人民委員擴大委員會終幕

全國人民委員代表擴大委員會第一日은 二十四日午前十一時半부터 開催되엿는데 中央委員 報告 討議가 잇슨다음 二十五日아침 大會의 名으로 還國한 臨時政府要人을 訪問하여 歡迎의 뜻을 表하기로 決議하고 午後다섯時閉會하엿는데 이번 會議의 議長이고 中央委員의 한사람인 洪南杓氏는 大會를 代表하야 다음과 가튼 談話를 發表하엿다

洪南杓氏談話要旨

이번全國人民委員會代表者大會는 朝鮮歷史가 잇는以來 처음보는 盛事이엿다 왜그런고하면 이 會合에 集合한 人民代表는 民族的 總意로서 選出된 오랜 鬪爭歷史를 가진 革命的勢力이며 또 三十八度以北의 代表外지도 參席하여 참으로 全國的인 總意가 集結된 것이여기 때문이다 大會의 討議는 朝鮮의 當面問題인 進步的民主主義 建國에 關한것으로 始終하엿스며 會議를 一貫한 主張은 民族統一을 時急히 促成시키자는 것이여서 親日派 反逆者를 除外한 民族統一을 할수잇는 勢力과는 統一을 할수잇는 決議의 結果는 次次로 發表될것이나 人民總意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닌것을 굿게 밋는바이다 또한가지 잊지 못하는 것은 이번大會가 完全한 自由 미테서 討議되엇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聯合國 더욱이 美蘇兩軍이 우리 朝鮮을 解放식혀준 本과 [illegible] 이다

過去의 業績을 기뻐하는 同時에 [illegible] 엽지안어 一緖될것을 밋는다 마침 大韓臨時政府 要人 金九先生을 비롯한 諸氏를 맛게 된것은 朝鮮의 [illegible] 要人諸氏는 그들의 政治路線이 우리의 方針과 完全 一致한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政綱에 [illegible] 民族統一에 協力할 것을 期待한다

東條等公判延期
關係國政府間의 協議關係로

【華盛頓二十三日發SF國際】 美陸軍省은 「맥아더」大將에 對하야 日本戰爭犯罪人公判을 延期하도록 指令하엿다고 發表하엿다 이에 關하야 美陸軍省은 다음과갓치 說明하고 잇다

被擧된 東條와 其他戰犯容疑者는 侵略戰爭을 計劃하엿스며 또는 戰爭을 이르켯고 아울러 條約을 違反하엿다 이들에 對한 裁判에 對하야서는 關係他國政府와 協議할 必要가 잇다 「맥아더」大將은 먼저 東條裁判을 卽時開始하라고 要請하엿지만 關係他國政府와의 協議가 目下國務省에서 進行되고 잇슴으로 當分延期하기로 된것이다 그러나 公判은 可及的 速히 開催될 것이며 戰爭犯罪人에 對한 公判은 國際的 權限을 「맥아더」大將에게 附與하엿다

對日通商反對
掠奪한것은返還
朝鮮問題調查會長强調

【紐育二十五日發AP合同】 紐育朝鮮問題調査會長金龍中氏는 廿四日紐育「타임스」에 寄稿하야 日本向輸出計劃에 反對하야 다음과 가치 말하엿다

日本은 오래동안 朝鮮에서 食糧原料品을 搾取하얏슴으로 朝鮮은 經濟的으로 莫大한 損失을 바덧다 日本이 朝鮮에서 掠奪하야간 純金其他 諸財産은 모두 이를 返還시킬것이며 强制勞働에 使役된 朝鮮人이 適當한 待遇를 바들때까지는 日本과의 通商協定은 할必要가 업다

그런데 金龍中氏는 全北錦山出身으로 日本에 留學後로스앤젤쓰에서 商業에 從事하엿고 그後 國際情勢가 緊迫化하자 獨立運動에 從事하엿스며 朝鮮國民黨과 在美韓僑聯合會에서 多年從事하다가 一九四三年부터 美國大衆에게 朝鮮紹介事業에 活躍 現在同調査會長으로서 一月「朝鮮의 聲」을 發刊中이다

國民의 視聽이 集中되는 金九先生宿所

本報續刊에對한各界의期待

社會의木鐸되라
中東中學校長 崔奎東氏

解放된오늘날 數많은 新聞과 아울러 朝鮮日報가 續刊된것을 참으로 깃보게 생각한다 新聞은 어데까지든지 眞實히 公正히 報道하여야되지만 朝鮮現狀에 잇서서는 社會民衆의 木鐸이 되지안흐면 안된다 이지음 新聞을 보면 民衆을 眩惑케 하는것이 만타 바라건대 우렷한 公是를 세워가지고 混亂狀態에 빠진 朝鮮民衆을 善導하여 주기 바란다

先驅者的任務
國民黨 安在鴻氏

朝鮮日報가 다시 續刊되어 民衆의 압헤 나타나리라고하니 매우 반가운일이다 朝鮮日報의 거듭한 波瀾曲折은 우리民族的受難의 一面相을 잘表現하는바로 追憶에 적지안흔 感慨를 일으키는바이다 이것이 直接日本帝國主義의 彈壓으로 絶息되엿섯고 解放이제 朝鮮民族에게 約束된 解放과함께 또다시 그 報道와 批判 및 宣揚의 機關으로서 新出發을하게 되는것은 매우 必要한 일이다 目下의 朝鮮은 民族解放이 約束되어 自主獨立國家의 完成이 待望中에 잇스면서 國民의 生活은 그의 全部面에서 온갓 混迷와 彷徨과 疑惑과 不安中에 빠저잇서서 光明은 展望하기 어려운 채로 暗黑에 올려되고잇서야 이지음에 잇서 言論機關에서 實踐하고 잇는 各界指導者들의 任務가 퍽 크지마는 이와 竝行하야 報導와 批判 宣揚의 機能을 쥐고 잇는 新聞은 그의 偉大한 影響力과 아울러 매우 크다할것이다 新聞은 大衆의 마음에 앞서 나아가면서 聰明하고 明朗하게 時代意識과 民衆의 眞正한 輿論을 잘 表現、宣揚하는데에 그 使命이 잇는것인데 天下의 마음에 앞서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叛逆을 무릅쓰고 積極的으로만 앞서나아감이 아니고 歷史의 法則과 社會의 實情에 비추어 現實下에서는 一步後退한 感이 잇더라도 實際에서 가장 適正한 것을 하면 그것이 곳 가장 先驅者的 任務인것이오 新聞의 眞正한 使命도 여기에 잇는것이다 新聞人들에는 남다른 聰明과 함께 가장 信念的 不動의 勇猛이 必要한것이다

傳統을살리라
共產黨 李觀述氏

日本帝國主義의 鐵鎖에 억매이엿든 朝鮮日報가 다시 나오게 된것은 貴報의 歷史를 잘알고잇는 나로서 반가운 일이다 더구나 方今朝鮮이 모든 叛逆者를 撲滅하고 斷然코 民族을 統一하여야할 重大한 現段階에 잇서서 朝鮮日報가 傳統잇는 그 本領을 充分히 發揮할것으로 크게 期待하야마지안는다

漆板

投稿歡迎 一百字內外 紙上匿名은 可하나 住所氏名을 明記하야 本社 論說編輯部로 보내주십시오

謀利輩의 跋扈

一部 謀利輩 때문에 서울 各處에서는 日本人家屋爭奪戰이 激甚하고 자근 鬪態를 演出하고 잇거니와 이것은 實로 遺憾스러운일이라 아니할수 업다 [illegible] 「正」을 지키지못하엿다 사실 알지못하는 [illegible] 謀利輩의 손을 거쳐 집이 다시 [illegible] 기 때문이다 어떤者는 일인의 집을 十여채나 산者도 잇고 버젓한 제 집을 가지고도 日人의 所謂 高等住宅을 사간者들 그 數 서울에서도 不知其數인것이다 집이 업서 日人의 집으로 간者 [illegible] 에 부러울것이 업것지만 [illegible] 속으로 國家를 [illegible] 顧해야할것이다 (讀者生)

八面鏡

「우리 國民들은 [illegible]」고 金九主席은 「스테이크」를 [illegible] 이 말을 듯고 [illegible] 은업는가?

◇ 名啣에 某某政黨 [illegible] 하고 박혀가지고 다니면서 [illegible] 이업는 친구가 얼마나 만혼가

◇ 이러한 무리는 [illegible] 여야할것

◇ 偉大한 政治家가 되려면 公을 爲하야 私는 一切버려야할것

◇ [illegible]

東洋旬報 十二月一日出刊
四六倍判 三十二頁 [illegible]
婦人記者招聘
[illegible]
東洋旬報社 光化門 一八五

새벽庭園을逍遙하시며 建國의고요한默想

訪問客으로日曜의休息도업시多忙

金九先生 [illegible]第三日

김구선생 귀국제삼일의아츰은 고요히밝엇다 지붕기에저한 조선자주독립건국의 새사과실이라 프도할수잇는 김구선생을비롯하야 대한임시정부요인일행의숙소인 서울죽첨정(竹添町) 최창학씨댁에는 첫겨울의일흔아츰 약간 추웅을무릅쓰고 모혀싸인 유아가튼군중이 선생마그입행되시는 분들의 얼골이나마 한번볼라고 첫새벽부터 사람의담을이루고웅성거린다

그러라 우리의지도자이시고너그러우신어버이들뵈옵는데 무슨 주저할일이엇고 꺼리낄일이잇스라 그립든얼골 그모습 마음껏 보자 힘껏부를고 가슴에새기고하소하여보자

이날아츰 일주이고령인에도아즉 장년마못지안게 건강하신김 신이 커갓 대로의선생은 아츰 여섯시좀지나 벌서기침하야 잠옷에 단장을 집호시고 밧서리에저즌 상록수푸른 정원을조용한 묵상속에 소요하시고 여덟시 팡파우유과일로인 간소한 조반을맛치시고 쉬일새이업시아츰부터 기다리든방문객의끔찍듯한 면회가시작되엿다

수만흔방문객중에 정광조(鄭廣朝) 김기전(金起田) 장도빈(張道斌) 조병옥(趙炳玉) 백관수(白寬洙) 안재홍(安在鴻) 씨들의얼굴도 보이고 작곡가(作曲家) 안기영(安基永) 씨의얼굴도 보혓다 남향으로 포근한햇빗을 담북이 받는선생침소의유리창에서는 감간히울리는선생의 부드러운음성에석겨 명랑한웃음소리가석겨돌모른다

열한시조금전 맑게개인하늘에 전파되는교회의종소리와갓치 자리를떠나서 [illegible] 씨를대동하시고 귀국이후 처음맞는일요예배를 하실라고 [illegible] 윤차 MG五호를타시고 정동(貞洞)주앙예배당으로 가시여 일요예배에참석하시엿다 정오좀지나도라가오시여서 일요의휴식도 취할새이업시 회견를갓엇도다

敎徒의한사람으로 豫通도업시禮拜堂에오신金九先生

어데지 차람한 회명을 가져오는듯 맑게개인 二十五일 일요일 시내 정동(貞洞)례배당엔 전국의감사와 마음의안식을 구하는 교도들의레배가 엄숙하게 시작되엿다 실내는 교요히 비처오는 교흥아츰 햇빛을 밧고 기도 찬송가 차례로 례배절차가 옴겨가는중에 배단(拜壇) 완전에자리를잡고 경영스리 례배를 드리는—그러나 아직 여러사람에게는 낫서른 세분손님이 동석한사람들의 주목을끌엇다 이윽고 또라가는 헌금(獻金)주머니에 부드러운 손으로 헌금을하는 엄연하고도 단정한 한분지사에 대하야 여러교도의 궁금증이 한참 컷슬때 정일형(鄭一亨)박사는 마츰내 「오늘 이자리에 우리가 모신 귀한손님한분을 소개해드리겟습니다」

하고 말머리를 내여놋코 지금으로부터十三, 四년전 미국「뉴-욕」시의「매듸손·스퀴야·까-든」에 큰모임이잇섯습니다 때는 마츰 민주당(民主黨)파공화당(共和黨)의정전(政戰)이 최고조에오르고잇섯슬지음으로 이날 모임에 수만흔 유명인사가소개되엇는데 모모다 그학벌과경력과함께 길게소개된뒤에 마즈막으로 단한마듸「장래의대통령이될「프랭크린·루-스벨트」씨를 소개합니다」고 하엿도 별도재려도업시 후세에일홈노픈 저「루-스벨트」대통령이 소개되엿습니다 이와 꼭가튼 말로서 오늘아츰 여기에 모신 김구선생을 소개합니다」고 이조금하든손님이 소개되엇다 일반의놀람은컷다「김구선생님이 우리와함께」모도다놀랍과 감격과 감사의착잡한마음으로서 생님께 례를드리는것이엇다

환국하신후 꼭시간에다망한이틀을보내고 사흘째인 최초의주일(主日)아츰 열한시 김구선생은 엄항섭(嚴恒燮)씨와 수원을대동하고 아모런예고도업시 이곳 례배에참석하신것이다 선생은위대한 정치가인동시에 또한 열렬한종교의신도이시다

金九先生 健康一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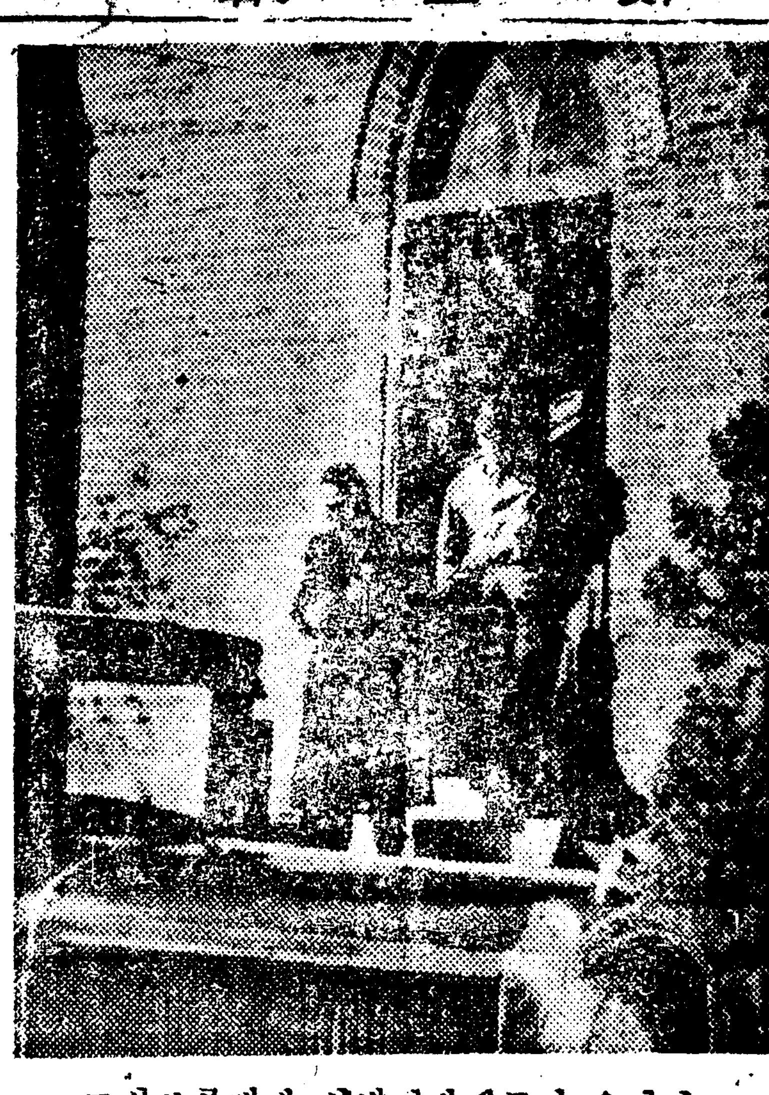
[illegible] 하로를 보내시엇다 [illegible] 안재는 [illegible] 내서는 김구주석일행에게 [illegible] 외위로나되서라고 廿六일[illegible]를 [illegible] 한다빨을 밧치엇다

즐기시는朝鮮料理 材料도家舍에[illegible]

김구 선생님은 조선 음식을 즐기시다 침식을 [illegible] 고 춘추우 五十[illegible]을 해내 해외로 오죽 조국광복의[illegible]에 분주하시다 도라오신 우리 의지도자 김구선생의 [illegible] 선생의재류가 [illegible]

제성겻 모시자고 벌서부터 서울에서는「대한임시정부」 [illegible] 연회」까지 만들고 [illegible]의준비 [illegible] 일제는 특히 서울[illegible]식당의 [illegible] 솜씨잇는 [illegible]하야 매일가치 양식부위로 극진이대접하고잇는데 오래동안 해외에게시어서 [illegible] 조선요리를 [illegible]

그순국의정치적신념과 그열렬한 순교(殉敎)적종교와 신념에서 미루어진것일까 [illegible] 자유를나리오신 하나님은혜에 감사를 [illegible] 하나님 [illegible]의그거룩하신뜻에 어그러지지 [illegible] 감은[illegible] 더욱 굿게갑어지고저 [illegible]의 [illegible]는 더욱구더지는[illegible] 시엄숙한 래도로 [illegible]



사진은 정동례배당에서 례배를보시고 문박그로 나오시는김구선생

人情과意志의鬪士

熱火가튼義俠心으로싸워오신분

柳世天談

光復에一切를바치신金九先生

위대한애국의 혁명투사 김구(金九) 선생을 마지하야 현재흥영하는 동포들의 시선은일제히 서울시죽첨정(竹添町)최창학(崔昌學)씨집인 선생의숙사로 총집중이되어 날마다문박게는 각정당관계자를 비롯하야 어써케해서든지 잠간동안 선생의 얼골만이라도 한번대하여보려는 군중으로 겹겹이성을 이루고잇거니와 이룰파함께 시내에는누구 보다도 선생의 환국을 마음으로 절거워하고잇는 한사람의 노인이잇다 그는현재 서울시인사정(仁寺町)「대한민국임시정부환국준비회」 선전원(宣傳員)으로 이미몃달전부터 선생이도라 오는날을 손곱아고대하며 오직준비회일에만 전심하여오든 류세관(柳世天)씨이다 씨는원래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장신리(扶安郡下西面長信里)출생으로 일쪽이「하와이」로건너가리승만박사수하에잇다가 상해(上海)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다시 상해로건너가 이번에는 十여년동안이나 김구선생과 기거를 가치하다시피한사람이다 二十五일아침 김구선생의이야기를 드르려고 준비회로 기자가차저가니씨는 얼골에는 웃음이넘쳐 빗을감추지못하나 귀가어두어하는수업시 필담으로조히에 써서물어보는 기자의질문에 대략 다음과가튼 추억담을 말한다 쩌가귀가어두운것은 나이의탓이아니라 일본이임시정부와 사명을띄고 조선에입국하엿슬때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잔인한고문으로써 마침내두귀가아조먹어버린것이라한다

내가「하와이」로간것은 벌서 一九○四년 제일이엇고 여기서 상해로간것은 기미년이엇스니 이래 선생과 나는김구선생을모시고 十여년을함께 지낫것입니다

그동안 기다리다못하야 지친 마침 바라든김구선생이 드디오 오섯다는 말을듯고 어제숙사를차저가서 결국은선생의얼골을대하니 벼란간 지난날의고생을 하시든여러가지일이 [illegible] 나서 죄를수업시 눈물이쏘다젓습니다

제가 선생을 대할때가장 [illegible] 아프게생각이나는것은 선생의부인의일이니 선생의부인은 패병으로 오래고생을하시다가 급기야에는 어린아드님하나를 남긴채 이역에서 세상을떠나시엇든것입니다

이때부인은 상해「펜어랠」병원에입원을하엿다가 마침내 별세를하야 김구선생은 동지들의 주선으로 특별히상해에잇는 가장경한 공동묘지를써서장례를 지내게되어 나도함께장사지내는 일을보앗는데 그때「펜어랠」병원으로부터공동묘지로 고개를 넘어가리고 복류히거리가시든김구선생의 비참한얼골이 지금도 눈아패보히는듯합니다

그러고 선생의 자당께서도그때는 상해에계시엇스나 나중에 고향으로 도라오시어 세상을떠나시엇다는 통문이잇서 이번에 여주어보엇드니 선생은 다섯손꺼락파두손꺼락을 내어보이시며 선생이七十재에 자당께서는 이미 별세를하시엇다고 말하시드군요 그러나 이러케 이야기하는 [illegible] 에만을리는 마음이약한사람으로 생각하시어서는 큰잘못입니다 선생은 글짜그대로 일생의전부를 조국의독립만을위하야 바치어버린 혁명의열렬투사로서 그 불의의자가 얼마나 구든가하는 증거로는 이러한일이잇섯습니다 선생이 해외로가시기직전 선생은 평양어느사립학교에서 교편을잡고 기시엇는데 이학교에서 생도들파「애국가」를 부른것이 일본인귀에들니어 불행히도선생은 체포가되고 말엇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체포가되엿슬지언정 그러케독히 언제까지나 일본인에게 몸을내어맛기실분은아닙니다 선생은 마침내해주(海州)에서 탈옥을하야 도주를하시다가 뎜버드는 일본인경관을 두명이나 한서번에통팽이로 째련두이시고 그길로四백리나되는길을 도보로 도망하야 상해로 망명을하시엇든것입이다 이때 가로키시든제자들은 그후에 선생을흠모하야 수만흔생도들이 선생을따라 상해로드러와 선생의수하에는 젊은지사를이 하로도떠날날이 업섯든것입니다

이러케 선생은 외면은퍽평온한듯하나 마음속에는 어느째나 의협심의 불덩이가드러잇서 파감한 직접행동을 주저업시계속하시는분입니다

·현재의가치 중대한때 선생이 도라오신것은 아마 하늘이지시한일이나 아닌가합니다

아모록 선생의손을통하야 일허버렷든 우리강토는 반드시도로 차저질것을미더 의심치안습니다

感激의첫相面

金九先生에접하는金興斗君

三천만민중의환희와 감사속에 환국한림시정부 요인들이제二야를새운 廿五일은 일요일인만치 광적회견이라든가 사무는일체를 페지하고 사적관계인 래방자만을접견하엿는데 그들의회견하나하나가 극적장면을연출하지안흔것이업섯다 그중에서도 특히김주석과 그의당질로서 현재평동정(平洞町)九번지에 류숙하고잇는 김홍두(金弘斗)군파의 생홍두최초의상면광경이야말로 보는사람으로하야금 눈물을자아내지안흘수업섯다 한국례배를 정동례배당에서마치시선생은 정오조금지나 다시숙소로돌아오자 당질되는김홍두와의 면회를하게되엇다

「아저씨! 질아 홍두입니다」

「홍두 그러면너의아버지가바루 태훈(泰勳)이냐…」

「네 제가바로…」

말을맷기전에기쁨과 감격에북바치는 눈물로 위대한당숙과당질은 포옹된채 실내는잠시동안 침묵이흘럿다

中等對抗競技 第三日戰況

普專主催의 第一回全朝鮮中等學校對抗競技大會第三日은 二十五日午前九時부터 서울運動場에서 擧行된바 이날午前中陸上競技部에서는 海州師範校가 八十五點으로 斷然頭角을 나타내엇스나 午後에들어가서 徽文中은「필-드」部에서 多數得點하야 優勝을 쫏고잇서 不過五點差로서 接近하야잇는데 今二十六日正午부터 普專에서行할「마라손」競走 入賞如何로 優勝이 決定케되여 興味를 잇을고잇다 그리고 今二十六日午前十時에는 蹴球準決勝에 大東對中央, 京商對城南이 對戰키로되엿고 蹴球에는 培材對大東과의 決勝戰이 午後二時半부터 모다 普專球場에서 擧行케되엿다

今日의運動

▲普專主催 第一回中等校對抗競技 終日 午前十時 大東商業對中央中學 京城商業對城南中學決勝戰◇正午 마라손競走◇籠球決勝戰(培材對大東)午後二時半 全部普專球場 ▲中央靑年會籠球리ー그戰第五日 午後六時半 漢陽對天一 東早對派信 梨敎對金熙俊 靑年會室內코ー트

色鉛筆

문호를활작 개방하자 신선한 대기속에 해방파자유의 흥취한기분을 십이분느낄수잇는활달기개를가지자 너도나도 조선사람이다 우리독립국가건설을얼마나 애타게기다리고 싸워오든삼천만의 역사가푼저리가 아니엇든냐▲저 기미년에삼십도남녀노유가 한날한시에일본 군경의 총칼아래 독립만세를 웨치고 피를뿌리며 이러서든 그째우리강토 전민중의크나큰 축복파기대가우리 내외에소리를질든 우리혁명정부의 해외사업단역사는 이제 국내에도라와 새역사를 적며 나가려는 이때이다▲아직도 해외에남어잇는 지사와 유위한광복단체도 만히 그분들도 머지안허 돌아오리라 그러면해내 해외도업다 만세에 사모치는 혁명투사를와 교접하는삼천리강토에 새나라를 건설키에 찬란히빛나리리▲이때에 우리는 문호를활작개방하여야한다 우선선배선생들을 마지하기에 부족이잇슬수업다 기왕의조고마한 용출스러운 개인이란것은 마쌍이버릴것이다 저왜인들 마테서 서로맛지도 보지도못하고 말도못하는가운데 서로얼키어 이웃사촌은 몰리불러처 꾸차스럽고 비굴하든 모든장벽도 아직남엇다면 활작터저노아야한다▲우리는 전신전령을 국가건설에 바치미는외 한모자라는 차각을가지고 나감것을이다 그러므로써민 전청의대업을 대성하리라 보라 새천지는 넓버지지 아니하고 나라의대도는 열리지아니하엿는가 삼천만민족이 한몸동이가되어 새게무대에 달리는것뿐이다▲젊은 파벌이나 시기나 암투은용서도 무여이남아서는안된다

寫眞通信 十二月初旬創刊
新文化建設의報道
總販賣所 東邦貿易株式會社商事部 서울本町一丁目[illegible]
發行所 朝鮮寫眞通信社 서울[illegible]

라디오 JODK 11. 26

▲午後六、四五 英語講座▲同七、○○ 時報 뉴ー스▲同七、三○ 放送스케취▲同七、四五 [illegible]▲同八、○○ 노래와 輕音樂 大門樂團▲同八、四五 [illegible]▲同九、○○ 時報 뉴ー스▲同九、四五 音樂

尋人

京城府[illegible]町八九三 [illegible] 十一月十八日午後[illegible]에 無斷出家하엿는바 [illegible] 아시는이는 [illegible]으로 알려주시기를 [illegible]

푸른하늘 드노피 교정 한복판에 태극기가 나브끼고 떠오른태양처럼 찬연한 조선나라 미래의 용장한새싹이 도다나는 꼿―이꼿 국민학교에서는 자유해방이후 [illegible]한모습으로 날마다 어린이들이 글을배우고잇는가을

學校篇

씩씩한新建設의巨步 ①

글읽는소리도朗朗 힘과빛이가득찬校庭

겨울 칠판 책상…어저리의 운것이 여느나를 새로도리다 [illegible] 오로 빙아가득이느끼진 아동들의모습은 어써케 그러케도명랑하다 말이나 한국말구접 선생님의 손끝이가르키는대로 칠판우에 한글자를 소리노피읽어나려가는 아동들의 얼골파목소리에는 명랑함을 지나처사뭇천동파가튼 기쁨[illegible]하는고나

그럼! 그빗!

씨르릉…… 씨르릉……

교실창문을 흔들며 낭하를지나 교정을넘어 새조선건국의우렁찬 전주곡(前奏曲)입앙 맞치三천리방방곡곡을 새합파 새빗으로 일시에 뒤더흘듯이 랑랑히울려 나아가는 아름다운음색(音色)에는 지나든사람조차 한동안 발길을멈추엇선다 이학교교문아플지 거의날마다 낫스리 일쪽이 이러케도힘파빗으로 넘처흐르는명랑한목소리는 한번도들어보지못하엿스리라 어 하교에서 처음으로개학을 하든날 교장선생님은 뜰에가득이모인 아동들에게 연설을할때 목이메여 몃번이나 말이막힌채 우두커니섯섯고 처음으로 학파를 시작하엿슬때 선생님은몃번이나 눈물이 아롱거리어 어린이들의 얼골을 쏙바로 처어다 볼수가업섯다

무엇때문일가!

조선말, 조선노래, 조선글

리유는 별것이업다

오직한가지—돌도업는 오직한가지 일쪽이 다시차저보기틀 기약할슈 바이업든 이 한가지틀도로차저 이갓 피실이에 란만한 조선의 새봉동을 이루는것—그것하나로써 벅안가득이 느러어진 아동들의 가슴에는입시에 맹렬한 순정의 불이못고 선생님의가슴에는 흥흔 감격이 막울길업시 솟사올랏든것이다

◇

펄럭 펄럭—

푸르하늘 드노피 교정한복판에는 태극기가 나부끼고 바람을싸라 어린이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랑랑하게 흣업시퍼저나아간다

이를 아동의 목소리가 힘파빗으로 넘처흐르는이상 우리하뢰는 어서한근심 어서한난관이 잇드라도구태어 저정을할필요가 업다 (사진은 우렁찬목소리로우리글을배우는 한등생)

大韓臨時政府歡迎 街頭行列延期

대한[illegible](大韓[illegible]) 에서는 림시정부의 [illegible] 국을마저 二十六일 개최하랴든 환영가두행렬을 형편에따라 연기하기로되엿다한다

[illegible]의 발기로 [illegible] 조직하엿는데 [illegible]부에서는 [illegible] 강사가 [illegible] 오는 十二월一일에 개강키로 [illegible]